

# 심리학회보

발행인·이만영

편집인·유태용

발행처·(사단법인)한국심리학회

##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sletter

### 목 차

#### ▶ 회원 기고

- 제28차 세계심리학 대회를 뒤돌아보며 학회에 드리는 건의

#### ▶ 본 학회 동정

- 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 / 임시위원회

#### ▶ 분과학회 소식

- 건강심리학회
- 발달심리학회
-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 실험심리학회
- 사회문제 심리학회
- 여성심리학회
- 임상심리학회
- 소비자 / 광고 심리학회
- 학교심리학회

#### ▶ 각 대학 심리학과 소식

- 전남대 심리학과
- 한림대 심리학과
- 광운대 산업심리학과

#### ▶ 회원 동정

#### ▶ 신입회원 명단

- 정회원
- 준회원

#### ▶ 2004-2005년 한국심리학회 및 산하학회 연락처

### 회원 기고

#### 제28차 세계심리학 대회를 뒤돌아보며 학회에 드리는 건의

한규석<sup>1)</sup>(전남대 심리학과)

제28차 세계심리학대회가 지난 8월에 6일(8일-13일)간에 걸쳐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회에는 한국에서만도 30-40여 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국제학회에서 그렇게 많은 동포를 만난 적이 없어 서로를 매우 반가웠다. 학회에서 만나게 된 20여 명의 한국심리학자들과 저녁을 먹으며 서로 나눈 감회를 한국심리학회 회원들과 공유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기에 몇 줄 써보고 학회에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번 학회는 심리학의 올림픽이라고 할만 하다. 세계 각국에서 학자들이 참여하는데, 주최측에 따르면 약 80개국에서 5000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매일 오전과 오후 각기 25개 이상의 세션이 병행적으로 진행되기에 듣고픈 것을 듣자면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판이었다. 수많은 논문발표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등 대회운영에서 세련미가 느껴져 놀라웠다.

세계적인 심리학 학술대회는 이번 것과 응용심리학대회가 매 4년마다 번갈아 열리기 때문에 기실은 2년마다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는 폭이다. 이를 테면, 2006년에는 아테네에서 세계응용심리학대회가 열리고, 2008년에는 베를린에서 차기 세계심리학대회가 열리는 식이다. 전자는 응용심리학분야의 논문이 보다 많이 발표되고 후자에는 학술 심리학 분야의 논문이 보다 많이 발표되지만 양 대회 모두 다양한 논문들의 발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두 대회는 경쟁관

1) 이 글의 작성에 이정모 회원께서 도움과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13번지  
성지하이츠 오피스텔 917호

TEL • 02-567-0102, FAX • 02-567-0103

http://www.koreanpsychology.org



계라기보다는 자매관계의 대회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1972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열리고는 30여 년 만에 열리는 셈이라고 한다.

이번 대회 참석에서 가장 놀랍게 다가온 것은 중국의 심리학이 지닌 발전 가능성이었다. 그 동안 비교문화심리학회나 아시아사회심리학회 등의 국제적인 학술대회에 간간히 참석해 왔지만 중국본토에서 온 학자를 만난 적은 매우 드물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회적 환경 탓에 심리학이 거의 연구되지 못하고 있으리라 여겨왔다. 그런데 이번 북경대회에서 중국심리학에 대한 나의 이러한 생각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대회에서 나누어준 중국심리학의 영문 소개책자(세계심리학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0년에 제작되었음)에 따르면 중국심리학회는 한국보다 일찍 수립되었다. 우리보다 25년이나 앞서서 1921년에 심리학회가 수립된 것에 비하면 아직 학술활동이나 학회활동이 한국만큼 활발한 것은 아닌 듯 싶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1960년대 후반기에 10년간 진행된 문화혁명 탓이라고 여겨진다. 많은 수의 심리학자들이 교단에서 추방되었고 거의 모든 사회과학이 초토화되다시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10여 개의 심리학회(우리 식으로 보면 분과학회에 해당한다고 보겠음)가 조직되어 있고, 30여 개의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생을 교육하고 있으며, 4천 명 정도가 중국심리학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학회 구성에서는 의료심리학, 스포츠심리학, 산업심리학, 법정심리학, 학교심리학, 교육심리학 등의 응용분야가 눈에 띄며 실험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측정학 등의 분과 학회도 조직되어 있다.

북경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에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을 만나 들어보니 방법론으로는 실험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WTO 가입 이후에 교수들 간의 분위기도 매우 경쟁적인 색채가 강해지고 있고 이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경대학생들인지라 자긍심도 매우 높은 것 같았다. 내가 라이벌 대학이 어디냐고 문자 서슴없이 UC-Berkeley라는 대답이 나왔다. 미국의 우수

대학의 교수들과 교류가 많아지고 있기에 그들이 그러한 답을 주는 모양이라고 이해는 하였지만 뜻밖이었다. 북경사범대학의 심리학 교실을 다녀온 이정모 교수께서는 그곳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심리학과가 별도의 단과대학이라 볼 수 있는 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학부는 수많은 다양한 실험실들이 있는 고층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수 30여 명, 석사 100여 명, 박사 50여 명의 인력, 그리고 국가핵심과학연구소로 지정된 연구소가 있는 등, 한국에서 운영되는 심리학과와 열악한 상황과는 천양지차라고 한다.

학회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중국학자들이 다루는 주제가 그다지 다양하다는 감을 받지는 못하였다. 질도 연구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흥미롭게도 서구심리학 연구에서 최근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fMRI나 IAT(암묵적연합검사)를 이용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학술대회장의 전시장에 나온 것들로 보았을 때, 대학교재는 영어교재를 표지만 중국어로 갈아 붙여서 제작한 것을 많이 사용하며, 중국인 학자가 저술한 교재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번역서는 많이 있었다. 이런 저런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비해서 낙후되어 있기는 하나 조만간 대등한 위치에 놓일 날이 그다지 멀지 않다고 느껴졌다. 이정모 교수께서 3년 전에 왔을 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북경 시내의 큰 서점에는 응용심리 분야 및 일반 교양 분야의 심리학 저술이 꽤 나와 있다고 한다.

학술대회 첫 날 아침 여덟시부터 반부터 27개의 다양한 세션이 병행으로 진행되었지만, 내 흥미를 가장 끈 것은 세계심리학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연합회(International Union of Psychological Sciences)의 과거 회장들이 발제하는 심포지엄이었다. 세계 심리학의 과거와 미래를 다룬다는 것이었지만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마지막에 중국심리학회를 대표하는 두 분이 토론을 맡아 나섰는데 내용은 별것이 없었지만 매우 유창한 영어로 발언하는 와중에 이번 학회를 유치하게 된 것에서

느끼는 자긍심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심리학자들이 느끼는 자긍심은 일회성의 것은 아니었다. 대회를 기념하여 중국 정부에서는 기념우표를 발행하였으며, 중국의 자연과학계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었다. 대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식도 내 경험으로 보아서는 매우 매끄러웠다(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다. 비록 현재는 한국의 심리학이 중국에 비해서 발전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몇 해나 더 그러할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마음이었다. 이미 일본의 경우에는 질적, 양적으로 한국을 훨씬 앞서고 있다.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현재의 상태로 국내에서 안주한다면 중국의 심리학이 우리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띈 두 가지 현상이 있다. 첫째는 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매우 많아서 문화가 큰 분류제목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문화간 접촉이 늘면서, 문화간 이해가 중요한 주제로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기조연설(keynote speech)을 행한 최상진 교수의 강연에 많은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들어와 의자가 모자라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거나 서서 50분간 강연을 들었다는 것이다. 7개의 기조연설이 동시에 병행으로 진행되었기에 사람들은 관심있는 곳으로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동양의 심리학자가 한국악센트가 강한 영어로 발표하기 때문에 듣기가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서 필자는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역시 발표내용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는 최 교수의 발표가 동양인의 생활문화를 잘 설명하고 있기도 했겠지만, 그와 더불어 심리학에서 문화의 연구가 중심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중국 북경에까지 오는 것은 학회참석, 관광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계화가 돌이킬 수 없는 세태로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서구의 심리학자들도 문화의 차이와 동양인의 심리에 관심을 지니는 것이다. 물론 세계심리학대회가 동양에서 열렸다고 해서 동아시아의 심리학이 발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심리학자들이 자성하고 이러한 자성을 바탕으로 연구활동에 임하는 일이 절대적일 것이다.

한국에서 온 교수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석이었지만 이정모 교수께서는 한국, 중국, 일본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심리학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셨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이들 나라의 심리학자들이 개별적으로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으로는 세계심리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주축인 학술대회를 통해서 아시아의 심리학이 뚜렷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서양심리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비로소 심리학이 추구하는 원리들이 지닌 보편성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몇몇 사람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각국의 학회 차원에서 아시아심리학 학술대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회를 2-3년 주기로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는 것이다. 이 학술대회의 참여자가 범아시아권으로 확산되어 간다면 그 반향이 매우 크리라 본다. 틀림없이 서구의 심리학자들도 다수 참여할 것이고, 아시아의 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이론들이 심리학 교재에 등장하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심리학회 차원에서 국제적인 연계망을 놓기 위해서는 다음의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 영문학술지의 발간이다. 이 사업은 수년 전에 시작했으나 답보 상태인 것 같다. 신임 학회장께서도 취임사에서 이의 발간을 공언하신만큼 임기 중에 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학회의 모든 심리학 학술지를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문초록을 비중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연구자들과 편집인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으로 한국어 논문이 해외 학자들에게 소개되는 것이므로, 현행의 학회규정을 고치더라도 좀더 길게 쓰고, 정확하게 요체를 담을 수 있도록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5년간 학회의 학술지에 실린 영문 초록을 학회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회 홈페이지를 영문판으로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외국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 간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올려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5년간 학회지 발간논문의 영문초록이 올려져 외국 학자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심리학 관련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관심을 지닌 학자들이 심포지엄을 구성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연계의 마당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에서 참여한 학자들의 발표논문 초록을 학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한국심리학회와 국내 대학의 심리학 교육 내용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책자의 발간이다. 한국심리학회는 세계심리학회회를 주관하는 세계심리학연합회에 1973년 가입하였으나, 활동이 없어서 1992년 벨기에 학술대회 때 이장호 당시 학회장께서 참석하여 회원국임을 알렸다. 중국의 경우에 1980년에 가입하여 우리보다 늦었지만, 이미 대회를 유치하는 등 국제화의 진척에서는 앞서가고 있다. 한국의 심리학을 소개하는 영문책자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시급히 요청된다. 한국 심리학 전

반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영문책자는 물론, 한국의 문화 심리학에 대한 연구결과(저서 등)를 소개하는 시도가 조직적으로 기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회장단의 의지와 회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더불어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외국의 학회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참가비의 규모에 놀란다. 이번에 북경에서 열린 세계심리학대회는 참가비가 3백불이었다. 거의 모든 심리학의 학술대회가 적어도 200불 이상을 참가비로 책정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25-36만 원 안팎의 참가비를 내고서 4-5일의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학술대회가 운영되는 것은 직업인이자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심리학회의 연차대회 참가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1-2만 원 안팎이었다가 최근에는 5만 원이 되었다. 학회 연회비는 지난 십 여 년 동안 일반회원의 경우 3만 원, 교수의 경우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심리학회가 연회비로만 200불을 넘게 거두는 것에 견준다면 턱없이 작다. 이 정도의 경비로 운영되는 학회가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심리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부담금도 크게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제 시대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어느 때보다 요구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학회가 파악하고 회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심리학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학회운영을, 장기적인 기획 하에서 변신시켜주기를 기대한다.

■ ■ ■ 운영위원회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 2004년 6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
- 장소 :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 참석자 : 이만영(회장), 이종한(부회장), 서용원(총무이사), 남기춘(재무이사), 유태용(홍보이사), 김청택(대외이사), 이형철(정보이사), 민병모(학외이사)

● 논의사항

- 정례 학회 활동 및 학술사업 계획
  - 신년하례식 : 2005년 1월
  - 대외 · 대내 심포지엄 : 2005년 8월
  - 정기학술대회 : 2005년 8월
  - 뉴스레터 발간
  -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
  - 상임위원회 및 임시위원회 활동지원
  - 사단법인 관련업무 수행
- 법인과 심리학회 정관 단일화 작업
- 연차학술대회를 통한 회원 상호교류 활성화
- 한국심리학회 회장의 임기/선출방법에 대한 연구검토
- 현장 심리학자를 위한 한국심리사협회 창설에 대한 연구검토
- 영문학술지 편집위원회 역할 확대
- 회원들 및 산하 분과학회의 새로운 요구에 의한 기타 사업
- 국제학회 개최정보 홍보(관심촉구)
- 주소록 갱신작업

●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 2004년 10월 15일 금요일 12시
- 장소 : 교대역 근처 일식집 태정
- 참석자 : 이만영(회장), 이종한(부회장), 서용원(총무이사), 남기춘(재무이사), 이형철(정보이사), 민병모(학외이사)

● 논의사항

- 2005년도 신년 하례식 개최 일정 및 장소
  - 1월 7일(금) / 고려대 인촌기념관
  - 이사회(오전 10시). 신년하례식 및 학과장회의(오후 12시 30분)
  -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 대·내외 심포지엄 및 정기학술대회 개최 일정 및 장소
  - 8월 18일(목) ~ 20일(토) / 지리산 한화콘도
  - 대외 심포지엄 : 기업관련 이슈를 가지고 개최하여 주변 기업 참여 유도
  - 대내 심포지엄 : 학술대회와 함께 진행하여 집중도를 가질 수 있는 방안(포스터 발표와 병행)
  - 학술대회 문화행사(판소리) 준비
  - 조직위원장 : 서용원 총무이사
- 2004-2005년도 상임위원회 사업 할당에 관한 건
  - 학회발전기획위원회
    - 법인과 심리학회와의 정관 단일화 작업
    - 한국심리학회 회장의 임기/선출방법에 대한 연구검토
  - 자격제도 위원회
    - 현장 심리학자를 위한 한국심리학회 창설에 대한 연구검토
  - 영문 편집위원회 역할 확대
    - 영문으로 한국심리학회 업적 발간
- 국제학회 개최 정보에 대한 홍보-대외이사 담당
- 상임위원회 및 임시위원회 활동 지원안
  - 법 심리, 통일 심리에 관한 기존의 조직의 Counter Part로써 연구회 제도 고려
  - 관련 논의 : 1안은 연구회 제도를 정관에 반영  
2안은 임시위원회를 만들어 지원

### ●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 2004년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역삼동 학회사무실
- 참석자 : 이만영(회장), 이종한(부회장), 서용원(총무이사), 김청택(재무이사), 유태용(홍보이사)
- 논의사항
  - 이사회/신년하례식 준비 업무
    - 이사회 및 신년하례식장 안내도 부착
    - 현수막 제작 및 부착
    - 주차권 준비 업무
    - 카드결제용 단말기 준비 및 전화선 준비
    - 감사패 제작
    -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
  - 한국심리학회 123호 Newsletter 발간 계획
  - 대한교육평가협회
    - 심리학의 이익을 옹호하고 불이익을 막는 방향으로 분위기 조성
    - 각 대학의 심리학과 학과장 중심으로 회의 소집

- 전문상담 교사자격증
- 연차대회 심포지엄 주제
  - 각 분과를 넘어 심리학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 창출

## ■ 상임위원회/임시위원회

### ● 편집위원회(국문)(위원장 : 민경환)

- 2004년 6월 25일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3권 1호 2,200부 발행  
계재율 : 43% (14개 원고 투고, 6개 원고 게재)
- 2004년 12월 25일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3권 2호 2,200부 발행  
계재율 : 42% (19개 원고 투고, 8개 원고 게재)
-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회지 발행 지원금 일금 1,500,000원 받음.
- 학회지 논문 투고를 위해서는 학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저자 중 1인 이상은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해야 함.
- 타 분과 학회지에 투고되었으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인지 혹은 중복 투고된 논문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함.
- 2005년 상반기 학술 진흥재단 학회지 등재(후보) 계속 평가받아야 함.
- 2005년 6월 25일 24권 1호, 12월 25일 24권 2호 발행 예정.

### ● 심리학 용어정리 위원회(위원장 : 정봉교)

- 2000년도부터 시작된 심리학회 자체 학술용어 정리사업은 2003년도에서부터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 하(1차년도 1,235만 원)에서 학술단체연합회(학단연)의 1차년도 학술용어 표준화 사업(2003. 12. 1 - 2004. 11. 30.)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1차년도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2차년도 계속 사업여부를 평가받고 있음.
  - 2003년도 한국심리학회 총회에 보고하였던 용어집에 대한 보완작업과 학단연에서 요구하는 표준화 지침에 따라 학술용어를 정리하였으며, 그 진행과정이 2004년도 8월 20일 한국심리학회 대내심포지엄에서 보고되었고, 또한 2004년도 8월 30일에는 학단연에 1차년도 사업 중간보고 형식으로 보고되었음.
  - 2004년도 심리학 연구반 자체 내에서 표준화된 용어(4,767개)를 대상으로 학술단체연합회의 표준화 양식에 따라 입력한 자료를 9월 10일까지 학단연 표준화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이 자료에 대한 표준화 원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바탕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11월 12일까지 제출하였음.
  - 11월 18일에 1차년도 표준화 사업 평가와 2차년도 표준화 사업 준비를 위해 학단연의 학술대회와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11월 30일까지 1차년도 사업결산을 하였음.
  - 현재 심리학 용어정리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명단 : 정봉교(영남대), 성현란(대구가톨릭대), 이광오(영남대), 한규석(전남대), 권석만(서울대)
- 학술용어 표준화사업 1차년도 사업 평가 결과 2차년도 학술용어 표준화 사업(2004. 12. 1. - 2005. 11. 30.)에 계속 참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진행될 것임.

- 여러 분야들(인문·사회, 물성과학, 생명과학, 예체능 분야)에서 표준화된 용어를 대상으로 공동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것임.
- 현재의 표준화된 심리학 학술용어집(4,767개)에 대해 약 2,000개 정도의 용어를 보완할 예정임.

● **학회발전기획위원회(위원장 : 현성용)**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현성용(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위 원 : 김성일(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권생(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박중규(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 교수)  
           박창호(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천성문(경성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허태균(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 2005년도 사업 계획

- 법인 정관 및 학회 회칙 정비
- 학회장 선출 관련 규정
- 심리학과 학부 졸업생들을 위한 직업 창출 방안 모색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기타 학회 발전 방안 모색

● **학술위원회(위원장 : 이종한)**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이종한(대구대 심리학과)  
 건강심리학 : 박 경(서울여대 특수심리치료대학원)  
 발달심리학 : 곽금주(서울대 심리학과)  
 사회 및 성격심리학 : 나은영(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사회문제심리학 : 이재식(부산대 심리학과)  
 산업 및 조직심리학 : 이재창(대전대 산업광고심리학과)  
 실험심리학 : 이형철(광운대 산업심리학과)  
 상담심리학 : 금명자(청소년상담원)  
 여성심리학 : 정태연(중앙대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 조용래(한림대 심리학과)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 : 양 윤(이화여대 심리학과)  
 학교심리학 : 이기학(연세대 심리학과)

● **제1차 학술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으며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시 : 2005년 1월 21일 금요일 오전 11:30 - 13:00



장소 : 이즈미(서울역 4층)

참석자 : 이종한, 이재식, 이재창, 이형철, 금명자, 이기학, 서용원(연차대회 조직위원장)

위임 : 궤금주, 양윤, 정태연, 조용래

안건 : 2005년 연차학술발표대회 대외 심포지엄 주제 선정 및 학회 진행에 관한 논의

#### ■ 회의 내용 및 결과

##### ● 연차대회의 대외 심포지엄 주제

올해의 연차학술대회(8월 25일(목), 26일(금), 27일(토), 이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였던 8월 18일에서 20일 일정이 미국심리학회 일정과 중복되어서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한 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함)가 이제까지 학회를 하였던 대학교가 아닌 지리산 휴양지임을 감안하여 심리학을 현장에서 응용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기로 하고, 전남 일원의 기업체와 관련된 주제를 정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인 안으로 협상과 관련된 주제와 기관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정치인, 관료, 노사정위원회의 업무와 인력, 시민단체 등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 분야의 심리학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관계자를 연사 또는 토론자로 초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획안은 심리학과 심리학을 응용하는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심리학을 보다 더 활성화 시키고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과의 유기적 협력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언론의 홍보도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실제적으로는 연차대회에 협찬 또는 후원의 방법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연차대회 논문발표 진행에 관하여

연차대회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분과학회의 구분을 줄이고 모든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행사장의 공간적 제한도 감안하였다. 발표장을 큰 주제로 묶어서 다섯 개 정도로 하기로 하였다. 설명을 위한 편의로 분과학회의 명칭으로 묶으면, 임상, 상담, 건강, 학교 분과가 한 방, 사회/성격과 사회문제가 하나로 묶이고, 발달과 여성이 같은 공간에, 산업/조직과 소비자/광고가 한 공간, 그리고 실험분과는 혼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체로 큰 주제는 구두발표를 하고 소 주제 또는 석사학위 논문은 포스터 발표로 유도하기로 하였다. 발표할 논문을 신청 받고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각 분과의 학술위원장인 위원들이 다음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연차대회 기간 동안 문화행사와 레포트를 병행하여 보다 품위 있는 행사를 기획하자고 하였다. 참가자의 대다수가 대학원생이므로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해외유학을 위한 워크숍”, “글(논문) 잘 쓰기 워크숍”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연차대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진행에 관해서는 곧 활동을 개시할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알릴 것이다.

#### ●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 오수성)

##### ● 안건 : 학부 졸업생 대상 (응용)심리사 자격 제도 관련 공청회 개최안

##### ● 내용

■ 지난 2002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이후 임시위원회로 구성된 ‘응용심리사자격준비위원회’의 협의 내용이 현재 자격심사위원회로 이양된 상태이며, 지난 2004년 7월 13일 자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을 학회에 건의하기로 함.

■ 각 분과 학회장 및 자격심사위원들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함으로써 제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상담교사제도 특별위원회(위원장 : 최상진)

● 2004년도 전문상담교사(2급) 교직과정 승인 내역

대학명	학과(전공)	현행 표시과목	신규신청자격종별	입학 정원	신청 사유	승인 여부	전문상담 교사(2급)	심리학	상 담	적용년도 (입학)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40	신규	가	12			2004
경남대학교	심리학전공		전문상담교사(2급)	50	신규	가	15			2004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48	신규	가	14			2004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40	신규	조건부	12			2004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40	신규	조건부	12			2004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전공		전문상담교사(2급)	60	신규	가	18			2004
동서대학교	청소년상담심리		전문상담교사(2급)	40	신규	조건부	12			2004
동의대학교	평생교육과		전문상담교사(2급)	30	신규	조건부	9			2004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30	신규	조건부	9			2004
선문대학교	상담, 산업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40	신규	조건부	12			2004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40	신규	가	12			2004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 상담전공		전문상담교사(2급)	40	신규	조건부	12			2004
아주대학교	심리학전공		전문상담교사(2급)	80	신규	가	24			2004
우석대학교	심리학전공		전문상담교사(2급)	40	신규	가	12			200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40	신규	가	12			2004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60	신규	조건부	18			2004
천안대학교	기독교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80	신규	조건부	24			2004
천안대학교	청소년지도상담학		전문상담교사(2급)	60	신규	조건부	18			2004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40	신규	가	12			2004

대학명	학과(전공)	현행 표시과목	신규신청자격종별	입학 정원	신청 사유	승인 여부	전문상담 교사(2급)	심리학	상 담	적용년도 (입학)
한영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40	신규	조건부	12			2004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		전문상담교사(2급)	30	신규	조건부	9			2004
호서대학교	산업심리		전문상담교사(2급)	50	신규	조건부	15			2004
가톨릭대학교	심리학전공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43	자격종별추가	가	8	4		2004
경기대학교	교정학전공	상담	전문상담교사(2급)	40	자격종별추가	조건부	8		4	2004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40	자격종별추가	가	8	4		2004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48	자격종별추가	가	9	4		2004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전공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40	자격종별추가	가	8	4		2004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50	자격종별추가	가	10	5		2004
대전대학교	산업, 광고심리학과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40	자격종별추가	조건부	8	4		2004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49	자격종별추가	가	9	4		2004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40	자격종별추가	가	8	4		2004
영남대학교	심리학전공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40	자격종별추가	가	8	4		2004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97	자격종별추가	가	19	9		2004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상담	전문상담교사(2급)	28	자격종별추가	가	5		2	2004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30	자격종별추가	가	6	3		2004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40	자격종별추가	가	8	4		2004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40	자격종별추가	가	8	4		2004
합 계				1683			435	57	6	

■ ■ ■ 건강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권 3호 발간

2004년 9월 30일

● 2004년도 제4차 학술대회 및 워크숍

일시 : 2004년 12월 4일(토)

장소 : 서울여자대학교 종합교육관 소극장

● 2004년도 정기총회

일시 : 2004년 12월 4일(토)

장소 : 서울여자대학교 종합교육관 소극장

■ ■ ■ 발달심리학회

● 2004년도 추계심포지엄

일시 : 2004년 10월 30일 (토) 9:00 ~ 17:00

장소 : 성신여대 수정관 415호

내용 : 풍요로운 노년기 삶을 위하여: 노년기의 발달적 변화와 적응(발제논문 5편)

● 사례발표회

● 제 21차 사례발표회

일시 : 2004년 10월 16일

장소 : 성신여대 수정관 202호

내용 : 이혼가정 아동의 놀이치료 및 상담의 통합적 접근(정석진)

● 제 22차 사례발표회

일시 : 2004년 11월 27일

장소 : 성신여대 체육관 202호

내용 : RAD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안윤일)

●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발행

● 2004년 9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권 3호 발행(논문 8편 수록)

● 2004년 12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권 4호 발행(논문 9편 수록)

- 2004년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하반기 자격증 수여

발달심리사 : 황유정 수여 예정

- 2004년도 정기 총회

일시 : 2004년 11월 27일

장소 : 성신여대 체육관 202호

내용 : 2004년도 사업보고,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2005년도 회장단 및 신입이사 선출

- 2005년도 회장단 및 신입이사

회장 : 성현란(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신입이사 : 박혜원(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부), 이종숙(덕성여대 심리학과), 정영숙(부산대 심리학과)

자격관리위원장 : 박영신(배재대 유아교육과)

편집위원장 : 정명숙(꽃동네 현도 사회복지대 복지심리학과)

학술위원장 : 광금주(서울대 심리학과)

상벌 및 윤리위원장 : 김혜리(충북대 심리학과)

- 2005년도 1차 이사회

일시 : 2004년 12월 18일

장소 : 조선히텔 나인스케이프

내용 : 2005년도 신입 임원 및 신입 이사 소개  
감사 선출(숙명여대 김광웅 교수, 성신여대 이옥경 교수)  
2005년도 사업계획보고, 회칙 개정 논의

## ■ ■ ■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 총회

2004년도 정기 총회(2004년 12월 10일 대구대학교 정보통신원)

- 회칙 개정

- 개정 사유 :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제2차 이사회(2004년 8월 20일,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의 결의에 따른 개정 사항임.

- 개정 내용

1. 명칭 :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의 산하기관으로서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라 부른다.
12. 폐지 : 본 학회의 폐지는 본 학회 총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에서 행한다.
13. 부칙 : 본 학회의 회칙변경은 본 학회 총회의 발의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개정된 회칙은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 임원개선

- 차기회장 : 정진경(충북대 심리학과), 선임이사(03-05) : 이종환
- 감사 : 성한기(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 김혜숙 이사(아주대 심리학과)와 남기덕 감사(육사)는 2005년도 연구년으로 사임

- 이사회

- 1차 이사회(2004. 5. 8,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세미나실)

- 고 정양은 교수(2월 8일 타계) 추모 학회지(제18권 2호) 발간 결정
- 학회장 및 위원장의 업무추진용 활동비는 실경비 수준에서 학회예산으로 지출

- 2차 온라인 이사회(2004. 7. 26 - 30)

- 학회지 발간 운영세칙 개정 : 제4조(논문심사) (5)항(논문심사종합판정)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의 경우 재심사를 거쳐서 동호에 재심 진행

- 3차 온라인 이사회(2004. 9. 1 - 6)

- 2002년 이전의 미납회비는 면제하고 2003년과 2004년 회비만 징수

- 4차 이사회(2004. 12. 10, 대구대학교 정보통신원)

- 학회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을 연 4회 발행(현행 연 3회)

- 편집위원회

- 학회지(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발간

제18권 1호(4편 게재/9편 응모, 게재율 44.4%)

제18권 2호(7편 게재/12편 응모, 게재율 58.3%, 고 정양은 교수 추모집)

제18권 3호(12편 게재/16편 응모, 게재율 75%)

- 학술위원회

-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일시 : 2004. 5. 8,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심포지엄

일시 : 2004. 8. 20 - 8. 21,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 동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일시 : 2004. 12. 10, 대구대학교 정보통신원

- 범죄심리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

- 자격증취득자 : 범죄심리사 1급 3명, 범죄심리사 2급 69명

현장실습 중인 1급 교육이수자 : 23명

교육이수자(121명) : 1급 : 2002년 35명, 2003년 28명, 2004년 28명, 총 91명  
2급 : 2001년 30명, 2002년 30명, 2003년 30명, 2004년 31명

범죄심리사 2급 자격증 발급(2004. 10. 8) : 16명

- 교육 및 연수 5회 : 범죄심리사 전문가, 범죄심리사 1, 2급
- 정부기관과의 수련 협약 체결 : 경찰청산하 6개 지역청, 서울 및 대구보호관찰소 외 3개 보호관찰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공주치료감호소
- 정부 및 유관기관(국회, 경찰청, 한국형사정책학회)의 행사 지원/발표/토론 : 5회

## ■ ■ ■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 ●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일시 : 2004년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 광운대학교 문화관 소극장

주제 :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Assessment center의 활용과 기법

후원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발표자 : 오동근(성균관대 심리학과), 이영석(성균관대 심리학과), 한태영, 탁진국(광운대 산업심리학과), 이순묵(성균관대 심리학과), 이종구, 장영순, 문재식, 한종훈, 남원모(대구대 심리학과), 이창우(성균관대 명예교수), George Thornton(Colorado주립대 심리학과), 민병모(토마스인터내셔널 대표), 김명준(한국심리검사연구소장), 임대열(다산 E&E)

### ● 동계 통계 워크숍 개최

동계 통계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으며, 모두 46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통계분석 기법인 다수준 분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가짐.

주제 : 집단 및 조직연구를 위한 multilevel theory의 이해와 활용

일시 : 2005년 2월 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장소 : 광운대학교 문화관 지하 1층 111호

강사 : 한태영 교수(광운대 산업심리학과)

## ■ ■ ■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 ● 학회 활동

#### ●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

■ 운영위원회 개최: 학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2004년 9월부터 총 4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

■ 이사회 개최

일시 : 2004년 9월 18일(토) 11 : 00

장소 : 서강대학교 정문옆 거구장

## 내용

- 사업보고 및 예결산 보고
- 신입이사 및 감사 추천, 신입 운영진 확정

### ■ 정기총회 개최

일시 : 2004년 9월 18일(토) 17:00

장소 :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소강당

## 내용

- 2004년 1월-9월, 직전회장의 잔여임기를 마친 김정택(서강대) 교수님의 정식임기가 시작되었고, 차기회장으로 김광웅(숙명여대) 교수님이 선출되었다.
- 이사, 감사가 새롭게 선출되었으며 교육연수위원회, 상담심리사수련위원회 등 두 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신입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 기타회의 : 차기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1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타 국가 공인화 추진 사업, 이혼 전 상담 법제화 추진 등과 관련하여 총 4회의 회의를 개최
- 회원관리
  - 회원들의 회비납부 현황을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 회원 활동 활성화에 주력
  - 연회비 완납 후 신청자에 한하여 학회지 개별 발송
  - 신규등록 1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회원에게 기관회원증 및 학회지 발송
- 교육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인가
  - 2004년 12월 8일자로 교육부 인가 받음
  - 2005년 5월 보건복지부에 '상담심리사 국가공인 자격증 신청' 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사단법인화 하였으며 학회 내 '상담심리사 국가공인화팀' (TFT)을 구성, 총 3회의 공인화 준비 관련 회의를 개최함
- 기타 공문처리 및 관련기관 업무협조 등
  - 육군사령부 : 군상급자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기법 연구 의뢰 요청에 협조
  - 서울가정법원 : 가사소년제도개혁안 관련 회의 참석
  - 국방연구원 : 군부대 상담전문가 배치에 관한 연구 기획 자문
  - 한국산업인력공단 : '2005년 미래직업전망' 제작 과정에 참여하여 '상담전문가' 직업 소개에 내용 자문
  - 법무연수원 : 교도관 대상 상담심리과정 교육프로그램 내용 자문
  - 서울시 교육청 산하 청소년 상담센터 존속을 위한 서명운동 협조 및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발송 등
- 분과위원회
- 발전기획위원회
  - 학회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 학회 월례회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 소집(사례발표회 개편 방안 논의)

● 대외협력위원회

- 상담심리사 자격증 국가 공인화 추진 등과 관련해 학회(회원) 권익을 위한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윤리위원회

-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회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 학술위원회

■ 월례회 학술발표(총 3회)

- 2004년 9월 발표(9. 18)

제 목 :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개입

발표자1 : 안현의(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주 제1 : 위기상담

발표자2 : 이수연(대구한의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주 제2 : 대구지하철참사 청소년 생존자를 위한 위기상담의 효과

- 2004년 10월 발표(10. 16)

제 목 : 사례개념화의 이해와 적용

발표자 : 손은정(이화여대, 동국대 강사)

- 2004년 11월 발표(11. 20)

제 목 : 놀이치료의 상담 적용

발표자1 : 권영민(서울발달심리상담센터 부소장)

주 제1 : 상담에서의 놀이치료 활용

발표자2 : 박량규(새세대육성회 부설 치료연구소 소장)

주 제2 : 모래놀이치료의 상담 적용

■ 12월 국제학술대회 개최(P.Paul Heppner 초청)(12. 18)

발표자1 : 이동귀(미국 퍼듀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주 제1 : 미국 유학과 외국 학술지 논문 준비

발표자2 : P. Paul Heppner(미국상담심리학회 회장, 미국 미주리대 교수)

주 제2 : 상담에서의 문제해결(problem-solving)

■ 상담연구회 구성 및 홍보

- 활동중인 연구회(총10개)

교정상담심리연구회, 심리극연구회, 아동상담 및 심리치료연구회, 전화상담연구회, 집단상담연구회, 학교상담연구회, 현실역동집단상담연구회, 행동요법연구회, NLP심리치료연구회, 가족상담연구회

- 연구회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

● 사례연구위원회

■ 월례회 사례발표(총 8회)

- 2004년 9월 월례회(9. 18)

사회자 : 유미숙(숙명여대 분회)



발표자: 주영아(아주대 분회)

토론자: 김병석(단국대 분회), 김수현(충북대 분회)

● 2004년 10월 월례회(10. 16)

사회자: 이재창(홍대 분회)

발표자: 이지은(가대성심 분회)

토론자: 김영란(불교대학원 분회), 장재홍(중앙대학교)

● 2004년 11월 월례회(11. 20)

사회자: 정승진(연대 분회)

발표자: 김성희(경북대 분회)

토론자: 심홍섭(서강다산 분회), 이규미(아주대 분회)

● 자격관리위원회

- 2004년 4월 개정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을 홍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상담심리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홍보위원회

- 2004년 홍보책자를 발간, 학회원들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외적으로는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총 6차례의 회의를 거쳐 본 학회의 매스컴 홍보안, 학회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전문가 정보수집 및 활동 홍보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학회지편집위원회

-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3호 발간
-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4호 발간

● 교육연수위원회

- 동계 교육 연수 세미나 개최

일 시 : 2005년 2월 15일(화) - 2월 16일(수)

장 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주 제 : Couple Therapy(부부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심리사수련위원회

- 상담심리사 하계 수련회 개최 예정(안)

일 시 : 이론 - 2005. 6. 27.(월) - 7. 1(금)

실습 - 개인상담실습 2004. 7. 4(월) - 8. 5(화) 22시간

집단상담실습 2004. 7. 6(수) - 7. 8.(금) 33시간

장 소 : 이론강의 - 한양대학교 또는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소강당(미정)

상담실습 - 광릉 세미나 하우스

## ■ ■ ■ 실험심리학회

- 학술지 발간 : 연 4회(3, 6, 9, 12월 말)
- 2005년 겨울학술대회 개최  
일시 : 2005년 1월 20일 목요일 11:00-17:00  
장소 : 서울대학교 82동 멀티미디어 강의동
- 2005년 여름학술대회 개최 예정  
일시 : 2005년 8월 중

## ■ ■ ■ 사회문제 심리학회

- 2004년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일시 : 2004년 12월 3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 통일교육원  
학술대회 주제 : 한민족 통일의 과제  
차기 회장선출 : 김의철 교수(중앙대) 재임
- 학회지 발행  
2004년도 : 특집호, 10권 1호, 10권 2호, 10권 3호  
2005년도 : 특집호, 11권 1호, 11권 2호, 11권 3호, 11권 4호(예정)
- 회원현황  
2004년 12월 기준 : 총 회원수 182명  
정회원 : 139명, 준회원 : 39명, 특별회원 : 4명,  
Fellow 2명(1회-이종한 교수, 2회-이순철 교수)
- 학회 홈페이지  
2003년 9월부터 개설, 주소 : <http://www.kapsi.or.kr>
- 2004년도 학회 요람  
제작 및 발송 : 2004년 5월
- 편집위원회 내규 5차 개정  
일시 : 2004년 12월 3일

개정 사유 : 학회지 발행횟수 변경과 회원 연회비

개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994년 9월 30일 초안 1999년 2월 28일 1차 개정 2001년 3월 3일 2차 개정 2002년 5월 31일 3차 개정 2004년 4월 20일 4차 개정	1994년 9월 30일 초안 1999년 2월 28일 1차 개정 2001년 3월 3일 2차 개정 2002년 5월 31일 3차 개정 2004년 4월 20일 4차 개정 2004년 12월 3일 5차 개정
제 5 조 (학술지 발행일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는 연간 3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행 시기는 5월 31일과 8월 31일 및 11월 30일로 한다. 제 7 조 (운영) 1. 5월 31일과 8월31일 및 11월 30일에 학술지가 발행되기 위해, 편집위원회는 정기적 회의를 개최한다.	제 5 조 (학술지 발행일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는 연간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행 시기는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및 11월 30일로 한다. 제 7 조 (운영) 1. 2월 28일, 5월 31일, 8월31일 및 11월 30일에 학술지가 발행되기 위해, 편집위원회는 정기적 회의를 개최한다.

● “박정현 우수박사학위 논문상”에 관한 규정 제정

- 사회문제심리를 다루는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표창
- 수상자에게 수상패와 부상, 박사학위논문을 출판할 수 있는 자격 제공

■ ■ ■ 여성심리학회

● 2004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이사회 및 정기총회개최(중앙대학교)

- 이사회 안건
  - 회칙 개정 및 보완
  - 학술위원회 학술보고
  - 편집위원회
  - 감사
  - 신입회원 및 신입간사인준
- 총회
  - 신입회장 선출(최상진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2005년 3월부터 2년간 임기

- 감사보고
- 편집위원회 활동보고

● **한국여성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일시 : 2004년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장소 :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1층 AV Room

● **개별발표**

- 사회 : 김기범(성균관대 응용심리연구소)
- 발표자 : 김양하, 최상진(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 고재홍, 이선희, 최인철(아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아주대 심리학과, 아주대 사회과학연구소, 경남대 심리학과, 아주대 사회학과, 서울대 심리학과),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고재홍, 이선희, 최인철(아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아주대 심리학과, 아주대 사회과학연구소, 경남대 심리학과, 아주대 사회학과, 서울대 심리학과), 허성호(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김기범(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허태균(한국외국어대학교), 한민, 김연석(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김지영(중앙대학교 심리학과), Fathali M. Moghaddam(Dept. of Psychology, Georgetown University), 임효진(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김예숙(춘해대학교 상담심리과)

● **심포지엄**

- 주제 : 일상의 언어 · 생활 속에 내장된 한국여성의 사회적 구성성
- 사회 : 이기학(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발표자 : 최봉영(한국항공대학교 교양학부), 이종구(대구대학교), 이해경(한국사이버대학교), 김명소(호서대학교), 조혜자, 방희정(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김양희(한국여성개발원)
- 종합토론
- 사회 : 허태균(한국외국어대학교)
- 토론자 : 김혜숙(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명소(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정태연(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임원선출**

상벌위원 : 방희정(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회원현황**

신입회원 33명 : 정회원 29명, 준회원 4명

현재 회원 205명 : 정회원 121명(교수회원 58명), 준회원 84명

## ■ ■ ■ 임상심리학회

### ● 이사회 안건 처리

#### ● 운영세칙 개정안 : 전원 찬성으로 통과

##### ■ 운영세칙 5. (4) 변경(밑줄 추가)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정지된다.”

##### ■ 운영세칙 10. (2) 삭제

#### ● 임시위원회 [임상심리자격제도개선위원회] 설치안 : 전원 찬성으로 통과

김지혜 회원을 위원장으로 위촉기로 함.

총무처 직업분류에 임상심리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 건강보험위원회의 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 전원 찬성으로 통과

##### ■ 운영세칙 7. 9) 가. 임무에 ③ 추가

(“③ 심리검사의 적정사용과 관련된 제반 정책과 대책을 수립한다.”)

#### ● 윤리위원회의 명칭 변경 : 전원 찬성으로 통과

“상벌 및 윤리위원회”로 변경하며, 추후 대내외 공로상 수상자 및 학술상 수여 후보 추천 등의 임무를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맡기로 함. 단, 2005년 동계학술대회 시 최정윤, 김재환, 손명자, 한국가이던스 사에 대한 공로상은 상신한 대로 수여하며, 추후에는 업적사항을 별도로 이사회에 제출하여 포상심사의 기준으로 삼기로 함. 앞으로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상 및 대학원 우수논문상 등 다양한 포상에 대해서도 개발기로 함.

### ● 학술 활동

#### ● 2004년 1월 사례 발표 및 수련생 교육

#### ● 2004년 2월 동계 학술 대회 심포지엄 : 심리 평가 수퍼비전 실제

#### ● 2004년 5월 춘계 학술 대회 심포지엄 : 부부 치료

#### ● 2004년 11월 추계 학술 대회 심포지엄 : 임상심리학에서의 행복 추구

임상심리학과 행복추구	김중술(서울대 명예교수)
주관적 안녕감의 최근연구동향	서은국(연세대 심리학과)
행복에 대한 dialectical 행동치료 접근	조용범(조용범과 함께하는 심리클리닉)
마음의 고통을 넘어서 안녕으로 -명상의 과학	장현갑(영남대 심리학과)
행복에 대한 Gestalt치료적 접근 -Gestalt치료와 영성	이영이(성신여대 부설 심리건강연구소)
행복에 대한 생물사회실존적 접근	이홍석(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정신과)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윤순임(서울정신분석상담연구소)

- 회장 이·취임

2004년 11월 6일 총회 개최 : 이영호(가톨릭대) 회장직 이임, 권정혜(고려대) 차기 회장 취임.

## ■ 소비자/광고 심리학회

- 학술지 발간

제5권 1호(5편) 2004년 5월

제5권 2호(5편) 2004년 8월

제5권 3호(4편) 2004년 11월

- 학술대회 개최(장소 :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연구소)

2004년도 한국 소비자 광고심리학회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콜로키움 개최(04. 5. 21)

제7회 한국 소비자광고심리학회 심포지엄 개최 : '소비자와 브랜드' (04. 12. 3)

## ■ 학교심리학회

- 학교심리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심리학회지: 학교”의 창간호를 2004년 11월 30일자로 출간. 관심있으신 분은 학교심리학회의 홈페이지(<http://schoolpsychology.or.kr/>)에서 내용을 보실 수 있음.

- 2005년 1월 29일에 동계 워크숍 개최. 워크숍에서는 U & I 학습유형검사를 활용해서 개인의 성격유형 및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각 개인에게 맞는 학습방법 및 생활지도방법을 모색함.

일 시 : 2005년 1월 29일 토요일 09:00 ~ 17:00

장 소 : 연세대

제 목 : 성격에 따른 학습 및 생활지도

### ■ 전남대 심리학과

- 1) 2004년 2월 신현균 선생님께서 전남대학 심리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셨다.
- 2) 4월부터 심리학과 부설 심리건강연구소 산하 정신재활센터, 아동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3) 5월 임상심리연구모임이 광주전남지회로 발전, 발족하게 되었다.
- 4) 10월 동문들을 중심으로 전남대 심리학과 26주년 행사가 있었다.

###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 1) 한림대학교는 심리학과 개설 10주년을 기념하여 2004년 10월 6일 “심리학의 응용과 사회기여”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2) 전우영 회원이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004년 9월 새로이 부임하였다.
- 3) 이주일 회원이 고령사회교육센터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 ■ 광운대 산업심리학과

- 1) 교육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수여심사에서 본 산업심리학과는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일

부 교과과정 변경을 거쳐 조만간 완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해당학년은 2004년 신입생부터이며 매년 12명이 졸업 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 2) 2004년도 세 번에 걸쳐 국내외 학자를 초빙해서 콜로키움을 가졌다.
  - 2004년 8월 5일 :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태도(미 테네시주립대학교 Frederick Leong 교수)
  - 2004년 12월 17일 : HEXACO Model: 새로운 6차원 성격구조이론(캐나다 켈거리대학교 이기범 교수)
  - 2005년 1월 25일 : 다수준이론에 대한 강의 및 실습(광운대 한태영 교수)
- 3) 2005년 1월 6일에서 7일까지 강촌스키장에서 대학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신입예정생 7명(산업 및 조직심리 6명, 공학심리 1명)과 교수 및 재학생을 포함하여 25명이 참석하여 스키도 타고 재학생들의 연구발표 및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다.
- 4) 경영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2학년 전공선택 결과 산업심리학과는 작년도 25명에서 34명으로 9명이 증가하였다. 광운대는 2학년 전공선택 시 100% 자신이 원하는 학과로 보내주고 있다.

**김양희 회원**

김양희 회원(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005년 한 해 동안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여성학과와 리더십연구 및 훈련 전문기관인 창조적 리더십센터에서 비지팅 스킨라로 활동 중이다.

연락처 (학교) Women's & Gender Studie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Greensboro 200 Foust Building, PO Box 26170, Greensboro, NC27402-6170  
(리더십센터) Research & Innovation,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One Leadership Place, PO Box 26300, Greensboro, NC 27438-6300

**탁진국 회원**

탁진국 회원(광운대 산업심리학과)은 2004년 9월에 *Journal of Career Assessment*에 아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Tak, J. (2004).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s for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3), 298-311.

**유태용 회원**

유태용 회원(광운대 산업심리학과)은 2004년 12월에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에 아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Boies, K., Yoo, T. Y., Ebacher, A., Lee, K., & Ashton, M. C.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scores on the French and Korean versions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4(6), 992-1006.

**권희경 회원**

권희경 회원(상담심리전문가, 전 고려대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과 권영민(발달 및 상담심리전문가, 가톨릭대 심리학과 강사) 회원은 2004년 9월에 서울 발달심리 상담센터(www.seoulpsy.co.kr)를 오픈하였다.

**변명숙 회원**

변명숙 회원(발달심리 전공)은 '부모의 성역할 유형과 양육방식이 아동의 성역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2004년 8월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홍준표 회원**

홍준표 회원(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은 2004년 6월 초 "미국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위원회" (www.bacb.com)에서 요구하는 전문교육 및 수련요건을 충족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미국 정부 및 국제행동분석학회(Association for Behavior Analysis; www.abainternational.org)에서 공인하는 BCBA(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t) 자격을 획득하였고, 경기도 분당에 한국행동수정연구소 조기치료교육원을 오픈하였다. 전화 : 031-783-5722, FAX : 031-783-5921, 홈페이지 : www.childcare.co.kr,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플러스 A동 507호

**권순교 회원**

권순교 회원(숙명여대)은 다음의 영문 도서를 출간하였다.

David C. Burdick & Sunkyo Kwon (2004). *Gerotechnology : Research and Practice in Technology and Aging*(Eds.). N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정회원(대학/대학원, 현재소속) 12명

- 강상현 전주대 독어독문학과/전북대 심리학과 석사(임상심리)  
원광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실 임상심리전문가 기초수련과정
- 강용주 아주대 심리학과/아주대 심리학과 석사(산업 및 조직심리)  
아주대 심리학과 박사과정(직업심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상담평가부 전문요원
- 김미애 부산대 심리학과 석사(임상)
- 김양희 경남대 심리학과 학사  
\* 추천-정지숙, 조성희(국립감호정신병원 임상심리실)
- 김호영 서울대 심리학과/서울대 심리학과 석사(임상심리)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임상심리 레지던트
- 박명실 가톨릭대 심리학과/중앙대 심리학과 석사(임상심리)  
중앙대 심리학과 박사수료(발달/상담)/중앙대 심리학과 시간강사
- 변지원 가톨릭대 심리학과/가톨릭대 심리학과 석사(발달심리)  
부천시고강복지회관 상담실 놀이치료사
-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과/괴팅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신경심리)
- 이하경 호서대 아동학과/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석사(발달심리)  
한신아동발달임상센터 놀이치료사  
\* 추천-김아영(이화여대 심리학과)/이경숙(한신대 재활학과)
- 임 회 충남대 심리학과 학사  
\* 추천-정지숙, 조성희(국립감호정신병원 임상심리실)
- 장은진 부산대 심리학과/부산대 심리학과 석사(임상심리)  
해운대 자명병원 임상심리실 임상심리사
- 한태희 진주교육대 초등교육/진주교육대 교육학과 석사(학교상담)  
고전초등학교 교사  
\* 추천-황상환(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김종미(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준회원(대학/대학원, 현재소속) 66명

- 고선영 중앙대 심리학과/성신여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임상심리)
- 고유미 중앙대 심리학과/중앙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임상심리)
- 고정선 서울여대 특수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임상복지관 미술치료사
- 권정연 서울여대 특수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아동상담 및 심리치료)
- 곽웅신 가톨릭대 심리학과/가톨릭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임상심리)
- 김기환 부산대 심리학과. 무역학과/서울대 심리학과 석사과정
- 김광숙 전북대 생물학과/전북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상담심리)
- 김민우 서울대 심리학과/서울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임상상담심리)
- 김선영 서울여대 체육학과/서울여대 표현예술치료학과 석사과정(무용동작치료)

이혜란	고려대 간호학과/서강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석사과정 도곡중학교 예체능부 교사
장수열	대구신학대 신학과/영남대 심리학과/경북대 교육학과 석사과정(상담심리) 대구대 학생생활상담센터 인턴상담원
장자은	영남대 심리학과/계명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임상심리)
장진아	계명대 가족복지학과/경북대 교육학과 석사수료(교육심리및상담심리)
전소현	고려대 사회학과/고려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임상및상담)
전재현	고려대 심리학과/고려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임상및상담)
정미희	대구대 영어영문학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행정및정책)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정책)/대구대 학생생활상담센터 인턴상담원
정은영	가톨릭대 심리학과/고려대 심리학과 석사과정
조윤지	이화여대 심리학과/고려대 심리학과 석사과정
주봉림	성신여대 심리학과/성신여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임상심리)
주해원	중앙대 청소년학과/중앙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임상심리)
차주화	가톨릭대 아동학과/아주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산업및조직심리)
최성화	전남대 철학과/전남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임상심리)
최태한	아주대 심리학과/아주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상담심리)
최효주	가톨릭대 심리학과/가톨릭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임상심리)
최현정	서울대 심리학과/서울대 심리학과 석사과정
함자영	서울여대 인간개발학부/서울여대 특수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아동상담및심리치료)
황세희	중앙대 청소년학과/중앙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임상심리)
황은희	동국대 불교학과/성신여대 심리학과/성신여대 심리학과 석사과정
황유정	한신대 재활학과/한신대 재활학과 석사수료(심리재활)

## ■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추천(범죄심리사 2급) 16명

강주석	단국대 법학과/청주교도소 보안과 교감
구본혁	부경대 수산교육학과/부산교도소 분류심사과 분류사
김금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전주교도소 보안과
김백규	한국방송통신대 농학과/원주교도소 보안과 계장
김석현	경남대 교육학과/서울구치소 교무과 계장
김철민	동아대 법학과/부산구치소 보안과 교감
김철호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인천구치소 보안과 계장
김희곤	조선대 법학과/조선대 법학과 석사(민사법)/의정부교도소 경기교도대 중대장
박병렬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안양교도소 경비교도대 중대장
박용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성동구치소 보안과 교감
윤용석	전남대 사법학과/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 교감
이강희	부산외국어대 법학과/울산구치소 보안과(분류심의실) 분류사
이동우	경성대 법학과/부산구치소 분류심사과 분류사
이승구	충남대 행정학과/대전교도소 보안과 교감
이이순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부산구치소 보안과 6급
정태석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부산구치소 교무과 계장

## 2004-2005년 한국심리학회 및 산하학회 연락처

학회사무실 :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3번지 성지하이츠 오피스텔 917호

TEL : 02-567-0102, FAX : 02-567-0103, E-mail : kpa0102@chol.com, 홈페이지 : www.koreanpsychology.or.kr

### ● 운영위원

직함	이름	소속	전화번호(O)	전화번호(H)	핸드폰	FAX	E-mail
회장	이만영	고려대 심리학과	02-3290-2062	02-830-4321	011-790-5911	02-3290-2662	mahn@korea.ac.kr
부회장	이종환	대구대 심리학과	053-850-6363	053-784-2418	011-9391-2418	053-850-6369	jhyi@daegu.ac.kr
총무이사	서용원	성균관대 심리학과	02-760-0491	02-798-0491	011-259-0491	02-760-0491	suh0491@dreamwiz.com
재무이사	남기춘	고려대 심리학과	02-3290-2068	02-948-3249	016-389-2068	02-3290-2662	kichun@korea.ac.kr
홍보이사	유태용	광운대 산업심리학과	02-940-5422	02-379-9264	011-287-0924	02-940-5420	tyyoo@kw.ac.kr
대외이사	김청택	서울대 심리학과	02-880-6076	02-2658-6076	010-6488-6076	02-880-6428	ctkim@snu.ac.kr
정보이사	이형철	광운대 산업심리학과	02-940-5425	031-713-2992	016-738-5425	02-940-5420	hyung@kw.ac.kr
학외이사	민병모	(주)토마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	02-3452-7084	02-502-2698	011-767-2698	02-3452-7422	nureemin@hanmail.net

### ● 상임위원장

직함	이름	소속	전화번호(O)	전화번호(H)	핸드폰	FAX	E-mail
국문 편집위원회	민경환	서울대 심리학과	02-880-6438	02-596-0423	011-9708-7712	02-880-6428	minhwan@plaza.snu.ac.kr
영문 편집위원회	김영진	아주대	031-219-2768	031-212-9791	016-326-2768	031-219-2195	yjkim@madang.ajou.ac.kr
상별 및 윤리위원회	이순철	충북대 심리학과	043-261-2179	02-2672-8636	016-296-1280	043-272-2058	snchul@chungbuk.ac.kr
학술위원회	이종환	대구대 심리학과	053-850-6363	053-784-2418	011-9391-2418	051-850-6369	jhyi@daegu.ac.kr
심리검사심의위원회	박동건	고려대 심리학과	02-3290-2066	02-419-2432	011-897-2432	02-920-1192	sykhpark@korea.ac.kr
학회발전기획위원회	현성용	대구대 심리학과	053-850-6364	053-792-3015	010-8589-6364	053-850-6360	syhyun@daegu.ac.kr
자격제도위원회	오수성	전남대 심리학과	062-530-2651	062-525-1698	011-9607-3030	062-530-2659	ssoh@chonnam.chonnam.ac.kr
공공정책위원회	김정운	명지대 여가정보학과	02-300-1817	031-719-0772	011-764-0772		cwkim@mju.ac.kr
[임시] 심리학 용어 정리 위원회	정봉교	영남대 심리학과	053-810-2234	053-755-8204	016-9812-2234	053-810-4610	bkchung@yu.ac.kr

● 선임이사

임기	이름	소속	전화번호(O)	전화번호(H)	핸드폰	FAX	E-mail
2002~2004	이정모	성균관대 심리학과	02-760-0490	02-443-5301	016-375-5301	02-760-0485	jmlee@skku.ac.kr
	박영석	가톨릭대 심리학과	02-2164-4277		010-4512-5954	02-2164-4277	yspark@catholic.ac.kr
	정봉교	영남대 심리학과	054-810-2234	053-755-8204	016-9812-2234	053-811-3312	bkchung@yu.ac.kr
	박병관	한국심리자문연구소	02-516-7980	02-869-4413	017-203-4413	02-2269-1665	psypia21@hanmail.net
2003~2005	오경자	연세대 심리학과	02-2123-2441	02-3476-6186	011-9736-9327	02-365-4354	kjoh@yonsei.ac.kr
	김수현	충북대 심리학과	043-261-2904	043-903-5961	011-496-5961	043-276-5380	shkims@chungbuk.ac.kr
	한덕웅	성균관대 심리학과	02-760-0489	02-998-5510	016-319-5510	02-760-0485	dwhahn@skku.edu
	방희정	이화여대 심리학과	02-3277-2644	02-6242-4193	016-237-4193	02-534-4195	hjbang@ewha.ac.kr

● 당연직이사

직함	이름	소속	전화번호(O)	전화번호(H)	핸드폰	FAX	E-mail
전임학회장	안신호	부산대 심리학과	051-510-2132	051-743-4658	016-547-2132	051-581-1457	shahn@pusan.ac.kr
차기학회장	조궁호	서강대 교양과정부	02-705-8560	02-599-9622	011-9964-9622	02-705-8653	ghcho@ccs.sogang.ac.kr

● 감사

직함	이름	소속	전화번호(O)	전화번호(H)	핸드폰	FAX	E-mail
운영감사	신현정	부산대 심리학과	051-510-2136	051-336-9965	011-9312-8206	051-581-1457	hjshin@pusan.ac.kr
회계감사	최양규	춘해대 유아특수치료 교육과	052-270-0221	055-902-0668	011-9342-9532	052-270-0209	ygchoi@choonhae.ac.kr

● 한국심리학회 간사

직함	이름	소속	전화번호(O)	전화번호(H)	핸드폰	FAX	E-mail
총무간사	신영주	성균관대 심리학과	02-760-0485	031-461-9475	011-321-9478	02-760-0485	aidkpa@hanmail.net
정보간사	이원기	광운대 산업심리학과	02-3421-8021		011-310-8021		rinehart2@hanmail.net
재무간사	박현주	성균관대 심리학과	02-760-1280	032-347-8185	016-321-8185	02-760-1280	wicca@skku.edu
사무간사	이인숙	학회사무실	02-567-0102		010-2208-1876	02-567-0103	kpa0102@chol.com
편집간사	유 경	서울대 심리학과	02-876-0856		011-9846-9577		ryukyung@snu.ac.kr

● 분과학회장

직함	이름	소속	전화번호(O)	전화번호(H)	핸드폰	FAX	E-mail
건강심리학회 회장	손정락	전북대 심리학과	063-270-2927	063-222-2036	016-703-2036	063-270-2933	jrson@chonbuk.ac.kr
발달심리학회 회장	성현란	대구가톨릭대	053-850-3234	053-784-2418	011-9565-2418	053-850-3204	oklee@cc.sungshin.ac.kr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회장	정진경	충북대 심리학과	043-261-2192	031-395-4649	010-3005-4649	043-271-1713	chungj@chungbuk.ac.kr
사회문제심리학회 회장	김의철	중앙대 심리학과	02-820-5161	02-418-7569			uicholk@chol.com
사회문제심리학회 부회장	박영신	인하대 교육학과	032-860-7877	032-872-9951		032-874-0535	yspark@inha.ac.kr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회장	탁진국	광운대 심리학과	02-940-5424	02-2649-5198	018-371-5424	02-940-5424	tak@kw.ac.kr
상담심리학회 회장	김정택	서강대 교양학부	02-705-8556		011-776-3859		jtKim@sogang.ac.kr
실험심리학회 회장	곽호완	경북대 심리학과	053-950-5247	053-767-5695	011-9702-5695	053-952-5247	kwak@knu.ac.kr
여성심리학회 회장	최상진	중앙대 심리학과	02-820-5128	02-558-1025		02-822-0751	choi@cau.ac.kr
임상심리학회 회장	권정혜	고려대 심리학과	02-329-2067	02-536-1316	011-9111-1316	02-3290-2537	junghye@korea.ac.kr
소비자광고 심리학회 회장	김완석	아주대 심리학과	031-219-2769	031-211-0539	019-315-2769	031-219-2776	wsgim@ajou.ac.kr
학교심리학회 회장	한종철	연세대 심리학과	02-2123-2438	031-913-3795	011-9728-3795	02-365-4354	jchan@psylab.yonsei.ac.kr

● 분과 간사

분과	이름	핸드폰	전화번호(O)	FAX	E-mail
건강	김자경	016-9292-6346			ican1004@chonbuk.ac.kr
발달	이금희	016-508-8939			baldal@baldal.or.kr
사회 및 성격 (범죄심리사간사)	장미정	011-9081-9448			mijung@hallym.ac.kr
사회문제	탁수연	016-350-3959	032-860-7870		jesytak@chol.com
산업 및 조직	정지현	016-786-3510		02-940-5420	Ksiop7@daum.net
상담(사무실)	이계정	010-4764-7802	02-498-8293	02-498-8294	kcpa@krcpa.or.kr
소비자광고	차주화	017-762-9292			capsy99@freechal.com
실험	곽지은	016-517-6244			cogpsych@cogpsych.org
여성	김양하	016-739-8181			ewoman@empal.com
임상(사무간사)	오지영	010-6396-2735	02-3676-5800	02-3676-5801	kcpa00@hanmail.net
임상(회장간사)	최윤정	017-391-5048			azure25@freechal.com
학교	양혜선	011-9160-7387	02-334-1201	02-322-0055	sylviayang@nate.com